

[보도자료] 쿠팡, 서울시와 손잡고 소상공인 기획전 우수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

2025. 4. 1.



-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과 협력 소상공인과 고객 모두에게 이로운 기획전
- 11월까지 지역 농수축산 및 특산물 판매 확대
- 참여 업체 50여 곳, 온라인 판로 확대 및 매출 증대 기대

2025. 04. 01. 서울 - 쿠팡이 서울시 지역상생사업인 서울동행상회와 협력해 '서울과 지역의 행복한 동행'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되며, 전국 소상공인들이 참여해 다양한 농수축산물과 지역 특산물을 쿠팡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기획전은 전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고객에게는 품질 좋은 지역 상품을 보다 쉽게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쿠팡은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서울동행상회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던 우수 상품을 전국 쿠팡 고객에게 소개하고, 다양한 할인 및 프로모션을 통해 판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쿠팡이 '서울과 지역의 행복한 동행' 기획전을 연 것은 지난해와 이어 올해가 두번째다. 올해 기획전 참여 업체 수는 20여 곳에서 50곳 이상으로 늘어났다.

전국 각지의 다양한 지역 특산물이 기획전에서 제공된다. 경기도 이천에서 친환경 방식으로 도라지를 생산하는 길경농원(도라지청), 전북 군산 회현농협(옥도진미), 충북 보은 구록원(수세미도라지배즙), 충북 충주 주식회사유기섬(아몬드 바삭대추) 등이다.

우리 농산물과 유기농 원료로 한과를 수제방식으로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안복자한과의 안복자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참여하는 만큼, 쿠팡을 통해 더 많은 고객에게 전통 강정과 김부각 세트를 선보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동수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단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쿠팡과 손을 잡게 됐다”며 “이번 기획전을 통해 우수한 지역 특산물이 더 많은 고객들에게 알려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중소기업과 지역 농가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상생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쿠팡의 상설 기획관 ‘착한상점’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의 지난해 누적 매출이 3조원을 돌파하며, 전국 소상공인과 지역 농어촌이 쿠팡을 통해 빠르게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